

제50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제5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식민통치와 6·25전쟁, 군사독재의 숭한 시련을 극복하고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선열들의 불굴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러한 공헌을 기리고 받드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자주독립의 역사와 민족자존의 가치를 한층 드높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큰 자랑으로 여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해방과 건국,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이뤄 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만큼 큰 성취를 이뤄 낸 나라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하고 분단을 극복하는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고, 변화가 필요할 때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통합의 첫째 조건은 균형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생과 공존의 환경이 조성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수도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극화 문제를 풀고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각 부문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늘진 곳, 억눌린 곳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균형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통합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토대는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대화와 타협, 공존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저항하고 투쟁해야만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시

대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이해관계를 앞세운 대안 없는 반대로는 어떠한 문제도 풀어 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풀어 가야 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교육·환경 등 여러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더욱 높여 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통합이야말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진보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남북 장관급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맨주먹으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 나갈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헌신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